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83. 넷째부터 여섯째 재앙

2014. 08. 03.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의 환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넷째, 다섯째 재앙에 대한 구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6:8,9]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9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1. 넷째 대접은 해에다 쏟는군요. 목사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두 그 대상이 천연계입니다. 땅, 바다, 강과 물 근원, 이제는 태양이네요. 천연계를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하셔서 사람이 더 만들어야 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마6:32)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은 다 먼저 만들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이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자연계라하고, 저는 천연계라고 하는 이 지구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이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천연계가 변질되었고, 천연계의 법칙도 변질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지구에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에 합당하도록 천연계가 유지되도록 항상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마구 훼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돌보시는 손길을 멈추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온 지구상에 이런 재앙이 한꺼번에 이르도록 하시지 않고 필요한 만큼 돌보시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을 일부 거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천연계에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2. 여기서 말하는 해도 실제로 해를 뜻합니까? 상징적입니까?

답: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곱 재앙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절정으로 익은 포도송이를 넣고 밟는다고 한 14:17~20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지요. 14장의 기록은 완전히 상징적이고 16장의 재앙은 14장의 포도주 틀을 밟는 사실을 실제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입니다.

3.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저 태양이 뜨거워져서 그 열기에 사람들이 타서 죽게 된다는 뜻입니까?

답: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미 몇 번 말한 것 같습니다만, 땅을 망하게 한 사실에 대한 천연계의 반응이지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유대인들과 논쟁하실 때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는데, 안식일에 창조주께서 일하시는 것은 천연계를 돌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우주 만물이 다 창조주의 끊임없는 돌보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법칙이 바로 창조주께서 돌보시는 상태에 대한 말이라고 믿습니다. 시119:89~91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돌보시는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119:89~91]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90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91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규례는 법칙입니다. 천연계는 창조주께서 세우신 법칙 아래서 유지됩니다. 그 법칙을 유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제7일에도 천연계의 법칙을 유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주하시는 일을 완전히 무시하고 천연계는 스스로 진화했다고 주장하고 인간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마구 훼손하고 더럽혔으니 천연계가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천연계가 유지된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들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모든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창조주께서 극도로 반역하며 짐승을 따르는 세상에 대하여 돌보시고 유지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잠깐 멈추신 것입니다.

4. 성경에 근거라도 있습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유지되었다고 하신 그 주장에 대하여 말입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는지요?

답: 당연히 있지요.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을 멸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 도시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도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느냐고 간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대답하십니다.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인하여 그 도성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만일 소돔과 그 이웃 도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유지되었다면 그것은 의인들 때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지구가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성경의 대답도 됩니다. 천사들이 찾아와서 살폈을 때에 소돔과 이웃 도성들은 다 악이 절정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손길을 거둘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의 역사적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유1: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벧후2:6]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

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구절은 소돔과 그 이웃 도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후세에 악인들에게 있을 사실을 미리 나타내 보여준 사건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일곱 재앙이 바로 이런 절정에 이르러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전혀 없게 된 지구에 대하여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거두셨을 때 일어나는 천연계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 아, 그러네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간청과 하나님의 대답은 확실히 의인 때문에 아직도 세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세상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지구를 붙들어주고 유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셈이군요.

답: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넷째 재앙에서 태양이 뜨거워져서 세상이 그 열을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해가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나 생물들이 태양열에 타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죽는지 고통만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9절을 읽으면 죽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태양열에 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태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훼방할 수도 있겠지만 문장을 보면 당사자들이 훼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계속되면서 속히 목숨이 끊어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합니다. 사실 이미 하늘성전에서 속죄봉사하시는 중보의 봉사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해도 속죄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은혜 기간이 끝났고, 곡식들은 다 익어서 더 익을 곡식이 없도록 말랐고, 포도는 절정으로 익어서 더 익을 수 없는 데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지요. 욕만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전혀 개의하지 않습니다.

6. 참 무서운 상황입니다. 창조주시오,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도 이때는 더 이상 무엇을 하실 수가 없겠군요. 은혜 기간 동안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하셨으니까요. 이제는 다섯째 재앙으로 이야기를 옮겨야 하겠습니다.

답: 아직 숨 쉬고 정신이 온전하고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말이거나 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은혜 기간이 끝나고 나면 후회해도, 또 부르짖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44000인으로 표상된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성도들이 세 천사의 기별을 목청껏 외쳐야 합니다. 알아듣도록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기쁨을 얻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다섯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읽도록 하지요.

[계16:10,11]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훼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다섯째 재앙은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으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짐승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계시록의 짐승은 상징적이니까요, 그 짐승의 보좌에 쏟았는데,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고 했으니 짐승이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보좌에 쏟았다고 하면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요. 그 대접이 쏟아지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분명히 가르쳐주는 표현이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바다짐승으로 표상된 그 나라임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보좌는 교회나라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상징인지 실제인지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습니다. 저의 생각은 첫째 재앙부터 넷째 재앙까지 모두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어둠도 실제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나라 전체에 실제적인 흑암이 있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 과연 그럴 것인가? 그래서 이 어둠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영적 어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지요. 제 생각으로는 교회나라의 보좌가 있는 곳이 실제로 어두워질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옛날 애굽에 9번 재앙이 흑암이었는데 실제적인 흑암이었잖아요? 그런 현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상징성도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앞의 네 재앙과 국면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앞의 네 재앙은 다 순수하게 천연계에 대한 것이지만, 다섯째는 짐승의 보좌라고 하여 상징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재앙은 상징성과 실제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섯째 재앙은 상징적으로 기록된 것이 확실한데요, 다섯째부터 그렇게 국면전환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7. 그런데 이 재앙이 내린 곳의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훼방한다고 했습니다. 첫 재앙이 종기인데, 그것이 다섯째 재앙 때까지 계속 종기 재앙이 내린다는 뜻입니까?

답: 첫째 재앙을 설명할 때 말씀한 대로 이때는 치료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쉽게 죽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기록된 문장을 보면 혀를 깨무는 아픔은 어둠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은 오늘날 밤의 어둠 같은 것이 아니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어둠인 것 같습니다. 넷째 재앙이 태양이 열로 태우는 것인데 다섯째는 어둠과 그 어둠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재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 재앙부터 차례대로 재앙이 내리는데, 물론 온 세상에 한꺼번에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국지성(局地性) 재앙이지만 말입니다. 재앙이 내린 지역은 황폐하기 그지없겠지요. 종기로 입이 마르고 목이 타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니 모두 피입니다. 언제까지 바다와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재앙은 서서히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게다가 넷째 재앙으로 태양열이 태울 정도로 뜨거울 때 마실 물이 없는 상태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뜨거운 사막 여행을 하다가 준비한 물이 다했을 때라도 이때보다는 나았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짐승의 보좌가 있는 나라는 흑암이 덮입니다. 그 흑암은 그 자체로 사람을 아프게 하여 혀를 깨물 정도입니다. 재앙이 국지적이지만 연속적이어서 첫 재앙이 다섯째 재앙 때까지 가는 것을 보면 둘째 셋째 넷째 재앙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양이 뜨거워 태울 정도라면 그런 곳에는 모든 생물이 다 죽을 것이 아닙니까. 농사가 안 되지요 엄청난 가뭄이 들 것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국지적이려면 물이 있는 곳도 있겠지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어서 그곳은 그곳대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것 자체도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8. 만일 그렇다면 그때는 메스메디아도 올 스톱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런 사실들이 보도가 될까요?

답: 글썬요?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짐작하면 그때도 보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과 신문이 그런 재앙을 보도할 것이고 사람들은 놀라서 병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각계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토크쇼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를 찾지 못하지요. 아울러 어느 지방은 바다도 괜찮고 강과 샘물도 괜찮다고 보도가 되면 사람들은 재앙지역을 피하여 한사코 재앙이 없다고 보도된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재앙이 이동하려는 지역에 발생했다고 하면 아마 이동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주춤하겠지요. 지금 우리가 그때 지상의 상황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흥행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렸다고 하네요. 저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이 재앙의 때의 상황을 아무리 상상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 그렇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머릿속에 어지럽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쯤 되면 정부나 행정당국이 무척 힘들겠습니다. 아마도 민중이 정부에 이런 상황에 왜 아무 대책도 없느냐고 항의하며 무능한 정부라고 성토했지 않겠습니까?

답: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가마다 정부당국은 엄청 원망을 듣겠지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라도 내어놓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일어나는 상황이 여섯째 재앙입니다. 이제 여섯째 재앙에 대하여 성경을 읽어봅시다.

[계16:12~14]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13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섯째가 재앙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강물이 마릅니다. 결과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재앙부터 여섯째 재앙까지 그 대상으로 거론된 것들이 일곱 나팔에서 보여준 것과 비슷합니다. 첫째 나팔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서 쏟아집니다. 둘째 나팔에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또 셋째 나팔에서는 햇불 같이 타는 별이 강과 샘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넷째 나팔에서는 해, 달, 별, 낮, 밤이 어두워집니다. 이것이 일곱 재앙에 대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일곱 나팔도 마지막 재앙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미래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다 같은 기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형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14장까지가 이 지상에 일어나는 역사적 진행과 관련된 사건들을 계시한 것임을 깨달으면 이런 해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신 역사적 진행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 지구에 건설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예언서들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 두 책 다니엘과 계시록의 예언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 없이 단순히 세계의 역사를 예언한 것으로 해석하면 전혀 엉

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신 의도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연구해야 하며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과 관계없이 예언된 사건을 역사에 맞추거나 종말에만 맞추어서 설명하려고 하면 인, 나팔, 재앙들이 다 마지막 형벌의 각각 다른 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복음을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 맡긴 사실을 깨달으면 일곱 교회가 복음을 맡아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상태를 보여준 것임을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계1:19,20절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일곱 인과 일곱 나팔도 교회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임을 아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의 마지막이 14장입니다. 그 다음은 심판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일곱 재앙은 분명히 역사의 종말에 포도주 틀을 밟는 내용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천연계에 대한 말들이 유사하다고 해서 같이 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일곱 나팔은 역사적 사건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준 것이고 일곱 대접은 집행되는 심판을 가르쳐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10. 예, 제가 질문하지 아니한 사실도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중이 무능한 정부라고 성토했고 민란도 나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상황이 여섯째 재앙이라고 하시고 유브라데 강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나팔에 나타난 천연계의 상태와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비록 그런 유사한 표현이라도 하나는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것이고 대접은 심판의 집행을 예언한 것이라고 지금까지 말씀했습니다. 이제 여섯째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셔야지요.

답: 제 이야기가 좀 옆으로 빠진 것 같이 생각되지만 짚고 가야 할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이 마른다고 했는데요, 여기 일곱 재앙의 역사적 표상들이 있는데 종기 재앙, 바다와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고, 흑암이 덮이는 것은 출애굽 때에 애굽에 있었던 재앙들 중에 그 표상이 있었고요, 여섯째 재앙은 고레스 왕에 의하여 바벨론 성이 함락되는 사건이 역사적 표상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44:26~28에 있습니다. 고레스는 유프라테스 강물을 돌려서 강물을 마르게 함으로 바벨론을 함락시켰습니다. 것처럼 여섯째 재앙은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르게 하는 것인데요, 다섯째 재앙이 상징으로 봐야하는지 실제로 봐야하는지 양쪽 다 적용시킬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지요. 그러나 다섯째 재앙이 넷째 재앙까지보다는 다른 국면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상징적 표현을 썼지요, 그런 맥락에서 여섯째 재앙도 상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의 이야기도 상징적 표현이거든요. 여섯째 재앙은 전체적인 표현이 상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이나 강물이 마른다는 말이 다 상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라고 했습니다. 많은 물이지요. 이것은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의 연합된 세력을 뜻하는 말인데 여섯째 재앙으로 이 연합이 깨어지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그 연합의 주체가 바로 13절에 나오는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인데, 그것이 용, 짐승, 거짓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의 원성과 성토와 민란을 막기 위하여 모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 이 세 세력이 온 천하의 임금들을 설득하고 회유해서 이런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짓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세상을 연합시키고 재앙의 원인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며 창조주와 부활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이 교회나라가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내리는 재앙이라고 주장합니다. 더러운 영들에게 속은 세상 권세들은 그렇게 설득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

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그래서 흔히 듣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재앙부터 다섯째 재앙까지 일어난 사실에 대한 세상 정부가 내놓는 해결책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시행될 것입니다.

11. 그러면 유프라테스가 마르는 것은 무엇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또 무엇입니까?

답: 유프라테스가 마르는 것은 역사적 그림자가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는 것은 고레스가 바벨론 정복할 때 있었던 사건이 역사적 표상이라고 했지요, 용과 짐승과 거짓선지자의 연합된 세력이 패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들이 완패하는 것은 곧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 되는 것인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이것은 아까 말한 바벨론 성의 함락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표현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인 고레스와 연합 세력이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패배하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길이 완전히 예비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사야는 고레스를 동방에서 오는 의인으로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부은 받은 종이라고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방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었으니 참 영예로운 일이지요. 그렇게 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군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군들과 함께 강림하시는 것을 옛날 바벨론이 함락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성경 몇 구절 보겠습니다.

[사45:1,2] 나 여호와와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2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늦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사44:26~28]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27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28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사41:2,3]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갈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개같게 하며 3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났나니.

이 구절들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인데 다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지요. 고레스의 이런 일이 바로 계16:12~16절의 역사적 모형입니다. 아마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미리 아는 예언적 지혜를 얻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언의 지도를 받아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서 재림의 날에 영광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 중에 있어야 하겠지요.(예, 애청자들이나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일곱 재앙에 대한 계시를 이만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언을 깨닫고 바르게 지도받아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광중에 맞이하게 하시고 이런 사실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자가 되어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